

# 목포서 첫째 낳으면 350만원 축하금

### 첫만남 이용권·영아수당 신설

### 출산축하금 대폭 상향 지원

### 인구정책팀 신설 다양한 인구정책

### 혼인 축하금 200만원도 지급

목포시가 인구 감소세 억제와 인구증가를 위해 분야별 다양한 대책을 펼친다.

목포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출산축하금을 상향 지급하고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신설, 청년문화 복지카드 도입,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및 아동수당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인구·청년 정책들을 추진한다.

출산축하금은 올해부터 첫째 15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350만원, 넷째 450만원, 다섯째 이상 55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400만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시행한다.

또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 아동에게는 기존 가정양육수당(월 15~20만원) 대신 영아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정책도 펼쳐진다.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사랑 문화복지 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2021년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부부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원도심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에

게 주거·공유 공간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해 청년 정착을 위한 시책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컨트롤타워로 인구정책을 총괄·기획·조정할 인구정책팀을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 신설했다. 또 부서간 협업을 촉발하기 위해 인구증가 실무 TF팀을 구성·운영해 목포만의 특색있는 인구유입 시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효과적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연계 협력사업을 중앙부처와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인구 증가의 근본 해법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문화예술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진도~제주 1시간 30분...4월 쾌속선 취항

### 씨월드 '산타모니카' 호

### 1일 2회 왕복 ...물류비 절감 기대

보배섬 진도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갈 수 있게 됐다. 육지에서 제주를 잇는 가장 빠른 항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은 오는 4월 씨월드고속훼리(회장 이혁영)에서 제주항과 진도항 사이에 쾌속선 '산타모니카' 호(사진)를 신규 취항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쾌속카페리 조선소인 호주의 INCAT사에서 건조 중인 '산타모니카' 호는 3500t급 쾌속카페리다. 속력은 42노트, 여객 700명 정원에 차량 86대(승용차 기준)를 실을 수 있다.

특히 진도-제주간 운항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육지에서 제주로 가는 최단거리·시간 배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항 횟수는 1일 2회 왕복한다.

군은 지난 2015년 씨월드고속훼리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진도항에 여객선터미널과 친수공간,

부두 접안시설, 여객 탑승과 차량 선적 시설,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들과 함께 자동차, 건설장비, 농산물, 생활 필수품 등의 활발한 운송을 통한 항로의 빠른 정착과 함께 진도항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제주항에서 육지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 절감 등 화주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선사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분석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제주항간 선박 취항으로 전남 서남해안 중심도시인 진도군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연결하는 해상 물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진도군이 제주도의 다양한 활어와 과일류 등을 전국에 공급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목포 항로는 3시간 50분, 제주-고흥(북동)은 3시간 15분, 제주-주자-우수영은 3시간, 제주-완도 노선은 1시간 40분 가량 소요된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 코로나 방역 힘 보탬 해군 제3함대사령부 선별검사소 행정인력 지원



해남동초등학교 학생들이 해남김치 애용 범군민운동 차원에서 김장체험 행사를 하고 있다.

해군 제3함대사령부(사령관 이동길 소장)가 설 연휴를 포함해 2주간 지역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 행정인력을 지원해 코로나19 예방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해남 제3함대사령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목포와 무안, 영암지역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 5개소에 행정인력 총 25명을 지원하고 있다며 오는 13일까지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한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완화하고 방역 일선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모두 간부들로 구성된 3함대 지원단은 검진을 받으러 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속환원검사 안내, 대기자 관리,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목포시보건소 김수연 팀장은 개인 SNS에 장병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김 팀장은 "가장 어려울 때 달려온 장병들을 보며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기자ky@

##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속도낸다

### 전문생산단지 조성 국비 건의

해남군이 김치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김치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김치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신규 국고건의 사업으로 선정, 각계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계획을 구체화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가을-겨울배추 재배 면적이 4995ha에 이르는 배추 최대 생산지이자 연간 3만7000여t의 절임배추를 가공, 출하하는 김치 원료 대표 공급처로서 사업 추진 취적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100억원 규모 광역단위 채소류출하조정센터를 유치하면서 연중 김치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연계 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중국산 절임배추 파동 이후 국산김치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김치 중추국으로서 위상 강화를 위한 김치문화 세계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기 가동과 국비 보조율

상향을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남군이 역점 추진해 온 김치전문생산단지 조성 사업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해남군은 원재료 및 식품 저장·물류센터, 가공공장, 김치 성분 기능성 연구센터(실증·분석), 창업·수출·R&D 등 지원 인프라가 집적된 480억원 규모의 김치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김치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보고회를 갖고 전남도를 비롯한 산·학·연 간담회를 실시했다. 농림부의 5개년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정책 목표인 국산김치 시장 점유율 확대와 국가 차원의 국산김치 장려정책 선도 방안, 김치문화 세계화를 위한 고품질 맞춤형 김치 개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국산김치 사용 범군민운동을 통해 학교 34개소를 포함한 관내 음식점 319개소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인준받는 등 국산 김치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김치수출 및 대표 K-푸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제반 여건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진도군,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55개 사업

### 17억원 투입 맞춤형 지원

진도군이 코로나19로 침체한 축산농가 경제 회복을 위해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진도군에 따르면 올해 17억원을 투입해 축산 경영안정 지원,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 등 55개 사업을 추진한다. 한우, 돼지, 가금, 염소 등 축산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기계·장비, 시설 개선, 맞춤형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한우 등록비와 출하운송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축산 확대를 위해 인증 비용과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도 지원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축산 분야 보조사업의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축산농가의 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주민 공유제' 우수사례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역량있는 시민·공동체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생산성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내부 행정역량을 측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을 개최하고 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는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 타 지역보다 월등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로 발굴한 것이다. 그 동안 대기업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로의 전환이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다.

이 제도로 14개 읍면이 전반적으로 사망률 증가와 출생률 저조, 타지역전출 등 자연 감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인지도 41명, 자은도 32명, 안좌도 39명, 자라도 10명 등 총 122명의 인구증가 사례는 매우 희망적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lee@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인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 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산순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참치 납품/배송) 1톤 냉동참치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